

홍경택 개인전 : 핑케스트라 Funkestra / (2005. 9. 23 ~ 10. 23, 제1전시실)

최진욱 개인전 : LOVE IS REAL / (2005. 9. 23 ~ 10. 20, 제2전시실)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이 아르코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처음 선보이는 전시는 2005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최진욱, 홍경택의 작업세계를 조명하는 기획초대전이다. 기획초대전은 젊은 신진작가들을 위주로 개인전 혹은 그룹전이 기획되는 최근 미술계의 경향에 주목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배제되었던 한국미술계의 허리세대인 중진작가들의 작업의욕을 고취시키고 한국미술의 현주소를 가늠해보고자 계획되어 올해로 2회째를 맞는다.

작가적 역량을 검증 받은 중진작가들의 개인전을 통해 작품세계의 변화양상을 확인하고 조명하는 계기와 더불어 이와 관련된 미술의 각 장르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를 마련하고자 한다. 작년의 기획초대전이 새로운 매체를 탐구하고 테크놀러지와 예술의 결합을 꿈꾸며 미술개념을 확장하고 시공간을 섭렵하는 탈 장르적 미술 경향을 다루고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획초대전은 전통적인 매체 안에서 작가 고유의 다양한 사고와 시각으로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사회를 읽고 담아내는 회화작업을 조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홍경택, 〈POPE〉, 162.2X130cm, Acrylic and Oil Canvas, 2005

그래서 '그린다' 라는 수공예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수고를 바탕으로 하는 회화 작업에 꾸준히 매진함으로써 회화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작가 최진욱, 홍경택을 초대하여 회화에서 또 다른 가능성과 맥락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코자한다.

제 1전시실에 보여줄 예정인 홍경택은 작가가 체험한 다양한 경험들 안에서 대척점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서로 출동시키기도 하고 그들 사이에 조화를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자신만의 여과방식을 통해 독특한 회화세계를 보여준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컵, 볼펜, 음식물, 책과 같은 사물들로 캔버스를 채우면서 여백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편집증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회화의 제도화된 역사에 대해 의문적 제스처를 취한다.

자신의 눈으로 본 개인적 관심사와 취향을 플라스틱적 미감과 디자인적 요소로 풀어내었던 작가 홍경택이 눈을 돌린 것은 핑크음악 Funk이다. 작가가 핑크와 오케스트라를 합쳐 만든 합성어 핑케스트라처럼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는 그의 회화 작업은 마치 시운드에서 울리는 듯한 이미지와 '핑크' (Funk) 이미지들이 충돌과 화합을 이루어낸다. 그리고 핑크—팝 문화에서 주로 등장하는 기호들과 텍스트를 가지고 만들어낸 강렬한 채도의 이미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불야성 이미지와 맞닿는다.

최진욱의 경우, 왕성한 작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그의 개인전을 감상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개인전은 그의 작업 변화과정과 새로운 조형적 회화구성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에 대한' 형태화된 이미지보다는 '세계 속에서' 전체적인 자각으로서의 느낌과 '세계'에 대한 확장된 개념을 구체화시키고자 다양한 미술적 조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시점의 변화를 준 동어 반복적 방법을 통해 인간 시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유의 지형학적 탐색은 캔버스 안에서뿐만 아니라 캔버스 틀의 설치 방법에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최진욱의 작업에서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대상이 주체를 감싸는 응시에



최진욱, 〈Love Is Real〉, 112X162cm, Acrylic on Canvas, 2005

의해서 둘러싸이는 양상의 과정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작가가 세계를 접하는 감흥이나 체험과정이 구체화되어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현실세계에 대한 감흥을 회화 언어로 풀어낸 회화 작업과 작가가 직접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모니터에 뜨는 글자를 통해 만들어낸 '문자 작업' 등 이전에 발표하지 않았던 작업들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